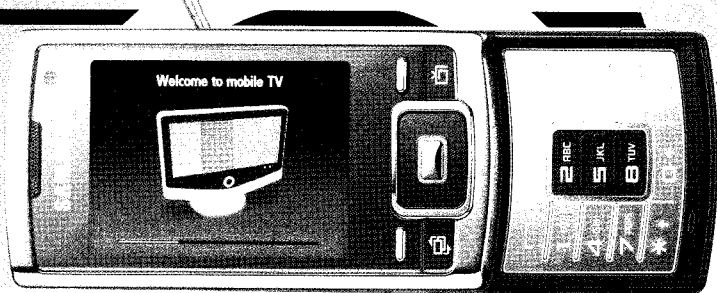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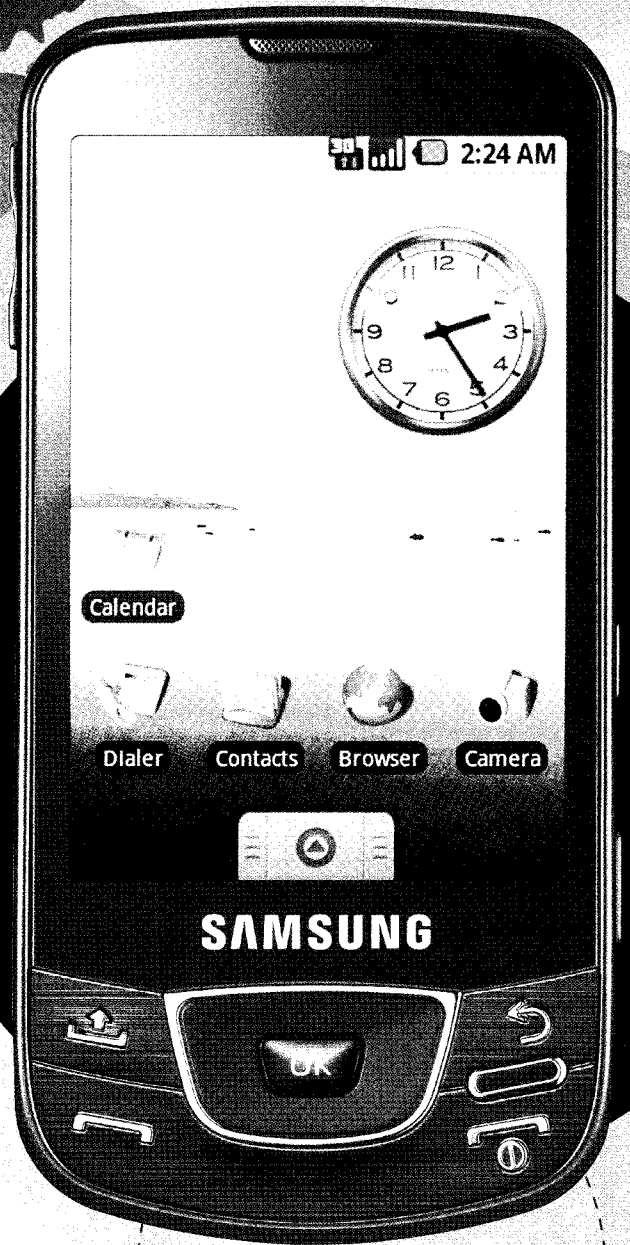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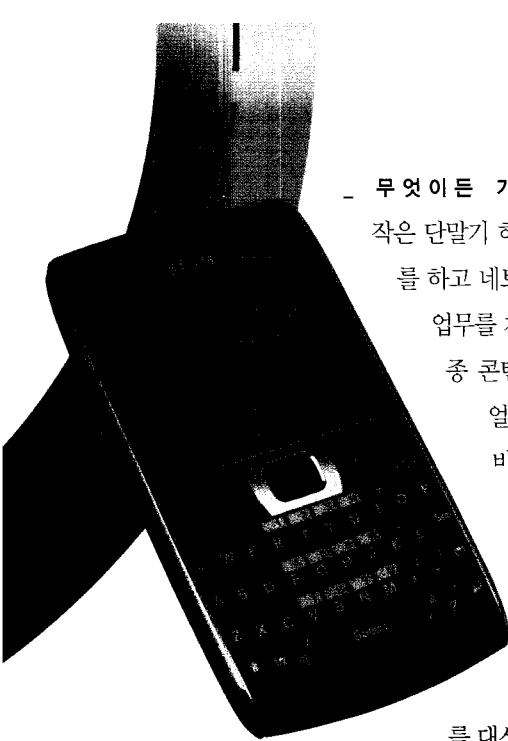


디지털 시장의 중심,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모바일 산업뿐 아니라 현재 IT산업 최고의 화두이다. 2008년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가 선정한 10대 히트 상품에는 애플의 3G 아이폰, RIM의 블랙베리 스톤이 선정됐으며, 향후 10년 이내 일어날 10대 IT 쇼크에는 스마트폰이 일상의 중심을 차지할 거라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애플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보자.

글_ 편집부 · 자료_ 전자정보센터





무엇이든 가능한 만능 단말기?

작은 단말기 하나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며 영화, 음악 등 각종 콘텐츠를 즐기는 모습.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영화와 텔레비전 광고에만 등장했었다.

그러나 2009년 오늘은 최첨단 IT기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아니더라도 영상통화나 DMB를 통한 콘텐츠 수신, MP3

를 대신하는 뮤직플레이어 등 휴대폰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PC처럼 휴대폰 단말기를 다루고, 각종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은 어떨까?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탑재한 똑똑한 '스마트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휴대폰이 음성 중심의 서비스 매체였다면,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기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쉽게 말해 손안에 들어오는 PC인 셈이다. 이메일 송수신은 물론 간단한 워드 작업과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이 가능한 이 최첨단 통신기기는 비즈니스 업계 종사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만큼 강력적이다.

정체된 모바일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

스마트폰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급팽창하고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 고도화와 단말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범용 OS가 발달하면서 휴대폰의 경쟁력이 소프트웨어로 바뀐 것이 한 가지 이유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도 한몫 했다.

리서치기관인 코엔 앤드 컴퍼니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세계 휴대폰 판매대수는 8%가 증가하고 매출은 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률은 한 자리 숫자이지만 하이엔드 제품군이 고성장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중심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휴대폰 매출의 40%를 스마트폰이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국내 휴대폰 기기 생산업체들과 통신사업자들이 2009년 스마트폰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서드 파티(third party) : 독자적으로 PC의 주변 장치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

스마트폰을 주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국내 휴대폰 기기 생산업체들과 통신사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비휴대폰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일반 휴대폰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성은 개방성인데, 바로 이점이 기존 대기업들이 아닌 중소기업도 비휴대폰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면, 한 화면에서 시간·기상예보·스케줄·빠른 전화 걸기 가능, 40개 채널 이상의 실시간 모바일 TV 구독 프로그램, ESPN 스포츠, 뉴스, ABC, NBC 등 채널 제공, 인기 미드 방영, 다양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1,000개 이상의 벨소리 패키지, 스마트폰에 담긴 데이터를 백업해서 자동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디렉토리 탐색, 파일 압축 기능 제공, 업무 스케줄 관리, 개인 기밀 정보를 저장·관리 및 PC와 연동하는 프로그램까지 너무나도 방대한 기능이 휴대폰 제조업체나 통신사가 아닌 제3의 개발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용자가 스스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삭제하며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폰 기기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고, 휴대폰 제조 기술은 없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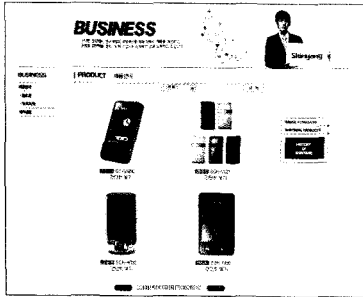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전망

국내 스마트폰은 2009년 4월부터 Wi-Fi 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니 에릭슨, 애플, RIM과 같은 외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벌써 국내 입성을 준비 중이다. 특히 RIM의 블랙베리는 2008년 말부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에 돌입했다. 그러나 PC처럼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관련지식을 습득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구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점들도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계 자체의 보급보다 보급 후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국내 휴대폰 관련 기업들과 개발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제조사의 매력적인 단말기와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서비스가 결합되고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다양성만 확보된다면, 다시 한 번 모바일 붐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2009년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른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한민국 벤처기업, 개발자들의 활약을 눈여겨 보자.

신양엔지니어링 중국 해주 법인 인몰드(IMD, IML) 제품 제조 납품 개시



꿈이 있는 기업,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 신양엔지니어링(대표 양희성, www.ishinyang.co.kr)은 휴대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온 기업이다. 정밀사출금형 관련 28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휴대폰 외장 부품 제조 업력만 12년이나 된다.

최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일반 휴대폰에는 거대한 LCD를 보호하는 동시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깔끔한 케이스가 요구되고 있다. 신양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측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소유한 회사다. 고속사출, UV코팅, 외관 증착, 진공 증착 등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해주 법원에서 인몰드(IMD) 공법(그림을 접착하지 않고 케이스 내부에 그림을 넣어 사출해 손상없는 디자인을 유지하는 기법)으로 만든 제품의 제조 납품을 개시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주)모린스 휴대폰 터치스크린패널(TSP) 분야 선두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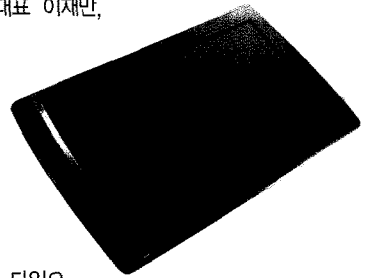
(주)모린스(대표 석승곤, www.morins.com)가 개발한 다양한 휴대폰 터치패널 중 윈도우 일체형 터치패널은 터치패널과 상판이 일체형으로 이뤄진 형태로 제품의 디테일이 뛰어나고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고급 터치패널로 평가된다. 모린스가 보유한 특허기술인 '플라스틱원도 일체형 터치패널'은 업계에서 가장 가볍고 얇은 두께가 강점이며, 만졌을 때의 반응속도가 빠르고, 특수재료를 사용해 화면 투과율도 우수하다.

석승곤 회장은 (주)모린스의 경쟁력을 '손 맛'이라고 표현한다. 전 직원이 모든 제품을 수작업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석 회장은 "수작업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장비 변경이나 재 프로그래밍의 수고를 덜어 시장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나라마다 모델이 다른 수출품을 만들거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때 특히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주)모린스는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최고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단계부터 양산단계까지 업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으로 스마트폰 TSP분야의 국내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3위 안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씨모텍 국내 최초 스마트북 '망그로브(Mangrove)'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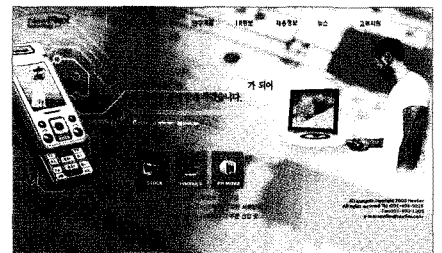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기업인 씨모텍(대표 이재만, www.cmotech.com)이 지난 9월 22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4G World 전시회'와 '2009 북경 국제통신전'에서 처음으로 국내 최초 스마트북 '망그로브(Mangrove)'를 공개했다.



망그로브(Mangrove)는 7인치의 배(Bar) 타입으로 퀄컴의 차세대 칩인 스냅드래곤과 윈도우 모바일 6.5를 탑재했다. 스냅 드래곤은 싱글 CPU로 통신과 기기 3G/CDMA와 같은 통신규격을 장착해 CPU와 통신칩을 따로 달아야 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또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과 같은 모바일 전용 OS를 적용해 전력 사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한다. 씨모텍 관계자는 "이번 시카고 '4G World 전시회'와 '2009 북경 국제통신전'에서 통신사업자들을 비롯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며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망그로브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뉴플렉스 데이터 전송속도 빠른 광PCB 기술 특허 취득

연성인쇄회로기판 전문제조업체 뉴플렉스(대표 임우현, www.newflex.co.kr)는 최근 인쇄회로기판에서의 광도파로 형성방법과 가이드 돌기를 이용한 광전 회로 정렬에 관한 2건의 특허



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뉴플렉스가 개발한 광PCB 제조방법을 적용할 경우 도파로 자체 내장에 따른 필름 제조 원가 절감과 광전회로 정렬시 발생하는 정렬오차에 의한 전송률 감소를 줄일 수 있다. 뉴플렉스 관계자는 "광PCB는 현재 구리회로의 FPCB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우수하고, 회로 간 신호간섭이 없어 회로의 설계 자유도가 높다"며, "따라서 광PCB는 차세대 인쇄회로기판으로 인터넷 통신, 팩스 전송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술로 첨단전자제품 제조에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뉴플렉스는 이번 특허취득을 통해 차세대 FPCB 시장을 선점하게 되어 국내 수요는 물론 해외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뉴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의 단시간 직접속 방식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